

지역 매 아리

# 김제시의회 의장 온주현의원 유력

김제시보건소 친절서비스 교육

김제시보건소는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이 행복한 고객을 만든다'라는 친절서비스 교육의 주제로 민원인에게 친절도를 높여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만고객의 이해와 응대 전략 및 고객감동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민원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문을 여는 인사법 등 민원인 응대요령 등이 주요내용으로 진행 되었으며, 이번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과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고 능동적으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했다.

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인 마라클인에듀에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된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차별화된 친절 서비스를 제공, 전국 제일의 친절도시 구축과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형희 김제시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더욱 다양한 친절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보건행정 환경에 발 맞추고 친절 마인드를 향상 시키겠다"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감동받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백구면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위문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은 지난 25일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살아가고 계신 백구면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를 방문하여 위로 격려했다.

이날 정관주 면장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30명) 현장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전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격려 방문을 통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듣고 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식중독 예방수칙도 함께 전달했다.

정관주 면장은 "지난 4개월간 사고 없이 성실하게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며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고령화 추세에 맞춘 노인복지사업으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참여하며 월 30시간 참여로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부위원장 김영자의원 등 각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할 듯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거센 바람이 김제시의회 지형도까지 바꿔 제8대 김제시의회 원구성도 민주당 독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제8대 시의회는 오는 7월 2일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 할 예정이다.

제8대 김제시의회는 더불어 민주당 8명(비례포함), 민주 평화당 6명 등 총 14명이 입성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한다. 그러나 전체 의석의 과반 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등 전반기 원구성을 싸울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민주당 온주현 3선의원이 확실시 되며, 부의장 김영자 2선의원이 유력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노규식 초선의원, 안전개발위원회에 유진우 2선의원이 내정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행정지원위원회에 초선 오상민, 정형철의원 각 축을 벌이고 있지만 김제시의회 과반 석을 차지한 민주당도 초선의원 5명에 대한 위원장 자리를 놓고 고민이 없는 것 아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서 사무공간 무료로 빌려드려요”

##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등 대상 내달 5일까지 모집

완주군이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를 위해 사무공간을 무료로 지원한다.

완주군은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사업'과 관련해 희망자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 창업가 양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 비즈니스센터인 스페이스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1인 창조기업 3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무료로 사무실을 지원해오고 있다.

스페이스워크에서는 사무공간 제공은 물론 법률자문과 세무회계,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다.

또한 앰배서더, 광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로 창업이나 경영을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oo-Work)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신청자격은 완주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창업 3년 미만 1인 창조기업이거나 예비창업자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5명 미만 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지식서비스업, IT기반 서비스 등 372개 업종이 해당된다.

선정된 업체는 6개월간 임대료 없이 사무공간, 인터넷, 사무기기 등 각종 편의시설과 민간비즈니스센터

의 지원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완주군은 1인 창조기업 설립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예비창업자에게 업무공간과 경영 기술컨설팅 등 종합적인 창업서비스를 제공해 1인 창조기업이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동체협력과(063-290-2482) 또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063-290-2487~8)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1인 창조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4차산업, 융복합산업,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 초포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완료

완주군이 초포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를 완료, 주민들의 편익을 높였다.

완주군은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아스팔트 덧씌우기, 인도설치, 신호등 및 교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교차로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초포삼거리 교차로는 소양~용진방향 우회전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컸고, 주민들의 보행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및 전동휠체어 이용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이에 완주군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부터 완주경찰서, 전북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지난 4월부터 개선공사를 시행했다.

개선공사를 통해 완주군은 넓은 도로 노면을 전면 재포장하고, 우수관매립 등 우수처리시설 설치로 장마철에도 안전을 꾀했다.

이외에도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도를 설치했으며, 전동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영 건설교통과장은 "교차로 개선공사를 통해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신호등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 홍보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서울 국제도서전이 6월 20일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홀에서 열렸다.

## 전 세계의 책과 문화 '한자리'

### 작은도서관, 서울국제도서전 프로그램 진행

김제시립도서관과 김제시 8개소(희망남포, 죽산, 길보, 새마을, 검산, JG, 교통골, 청하사랑) 작은도서관에서는 2018년도 김제시 도서관 연합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책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서울국제도서전으로 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작은 작은 도서관은 2018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지만 2018년 '책의 해'에 개최되는 도서전인 만큼, 다양한 행사와 독자 참여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졌다.

2017년 처음으로 시작한 김제시 작은도서관 연합프로그램인 작은도서관과 함께 하는 감성힐링산책 '걸어서 동네탐방'에서는 그래픽 속의 풍경들과 실제 골목길과 수변공원등을 차근 차근 걸으면서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자연의 따뜻함을 선사해 주었다.

2018년 서울국제도서전 탐방은 책으로 꾸며진 공간이 아름다운 별마당 도서관 탐방과 함께 이색적인 출판매체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전해 주었다.

송은섭 시립도서관장은 "김제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해서 김제시에 책 읽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부양곡 '나라미' 용도 외 사용금지 집중홍보

김제시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에게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양곡을 시중 쌀값의 50%~90%에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최근 양곡가격 상승 및 정부지원 금액 증가로 부정유통의 우려가 있어 김제시에서는 "나라미" 용도의 사용금지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용도 외 사용금지 스티커를 제작, 정부양곡 나라미 걸봉에 부착해 정부양곡을 배송 받는 대상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의 행정복

지센터에는 나라미 부정사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정부양곡은 나라미 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시중유통, 재판매 등으로 처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도록 정부양곡의 올바른 유통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제29회 정읍사문화제 거리퍼레이드

정읍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정읍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

접수기간: 2018. 6. 11.(월) ~ 7. 10.(화) / 30일간

참가부문: 전국 15팀, 정읍 30팀, 자매결연도시 6팀

참가자격: 팀당 30인 이상 (거주지 및 국적 제한 없음)

참가지원: 정읍시 - 퍼레이드 카 및 조형물 제작비 1,000,000원, 참가지원비 1인당 10,000원  
전국(정읍외) - 퍼레이드 카 및 조형물 제작비, 참가지원비 일괄 2,000,000원

시 상 금: **총상금 1천9백만 원 상당**

- 대상 1팀 5백만원 외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 인기상 3팀

접수방법: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

- 방문, 우편, E-mail, Fax 접수

\* 신청 현황에 따라 신청서를 사전심사 할 수 있음

세부사항: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 의: 정읍시청 토탈관광과 김희선 063-539-5236

거리퍼레이드: 10월 19일(금) 16:00~18:00 아양교~정동교~정읍사공원